

우주법칙 엔트로피, 그리고 순천



韓榮成

(Hahn, Young Sung)

방사선관리기술사,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국기술사회 고문.
E-mail : hys180@naver.com

빛, 태초에 빛이 있었다. 빛은 그림자를, 동시에 회절무늬를 만든다. 입자이자 파동인 것이다. 이럴수가! 빛은 남자이면서 여자란다. 같은 술고래, 출담배인데도 누구는 간경화, 폐암으로 고통 받는데 다른 누구는 끄떡없다. 우주는 인간이 있거나 없거나 자연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 한다.’ 그저 그런 소리로 들리는가? 아니다. 엄청난 이야기다. 왜냐고 물을 것이다. 빙빙 돌 것 없이 바로 간다. ①우주의 대 법칙(逆天者亡, 順天者存)이다. 따라야 한다. ②어떻게 살아야 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에너지는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에너지를 창조해 낸 적이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없다. 소모된 휘발유가 차를 달리게 하지만 그때 생긴 배기가스와 열로 다시 휘발유를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린이 방을 한번 보자. 언제나 어질러져 있다. 무질서다. 엄마가 매일 쓸고 닦고 정리해 줘야 만 한다. 질서다. 인간, 생물의 엄마는 태양이다. 태양의 엄마는 성운이다. 성운의 엄마는 우주다. 우주의 엄마는 없다. 그렇다면 우주는 항상 무질서로 만 가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 엔트로피다. 그런데 엔트로피 과정이 진행되는 속도만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선택에 따라 세상의 유용한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또는 천천히 분산되는가가 결정된다.’ 덜 쓰고 나눠 쓰고 상생이다. 여기서 과학이 형이상학과 만난다.

흔히들 부자는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한다.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며 아프면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다. 만병의 근원이란 비만증 환자가 미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에 압도적으로 많다.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자가 왕인 세상, 문제는 평평 쓰면 팍팍 쓰러진다.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물은 먹어야 산다.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남을 죽이는 살인죄다. 그런데 한 생명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또 하나의 생명인 것이다. 살생유택은 흔히 동물만 떠올리는데 식물도 마찬가지다. 생의 크나큰 모순, 이일을 어찌 하면 종단 말인가? 먹이사슬을 예외적으로 우주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생을 위한 또 한 생의 희생을 최소로 하라. 우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이를 어기면 천벌을 받게 된다. 먼저 비만으로 경고가 주어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각종 성인병으로 빨간딱지를 발부하다가 끝내는 죽음 선고다.

별만 있고 은혜는 없는가? 있다. 순천자에 대한 배려다. 나누어 먹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본 사람은 안다. 힘은 들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행복의 엔돌핀을 선사 받았다는 사실을! 결국 다수의 행복이요, 사랑이요, 구원인 것이다. 이 길이 대우주가 나에게 바라는 길이요, 나의 성공의 길이며, 행복으로의 길이 아닐는지.